

Magazine
새벽종
제4호 09+10 2022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표지 이야기

새마을운동이 일궈나가는 새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벽종〉. 이번 호의 표지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4년 5월 창간한 월간 〈새마을〉, 1998년 3월 창간한 「새마을운동」신문에 이어 2022년 3월 새롭게 시작하는 격월간 종합교양문화잡지 〈새벽종〉으로 새마을정신과 시대정신을 이어갑니다.



ISSUE NO.4
ISSN 2799-9343

지구촌새마을



Prologue

마을을 가꾸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잘 살기 운동'.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이
국경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모범적 사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머나먼 이국땅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흘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이뤄낸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성과를
지구촌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뜻 깊은 일.
반세기 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유산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21세기 세계인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새마을운동이 일궈나가는 새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벽종>. 이번 호의 표지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살기 좋은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4년 5월 창간한 월간 <새마을>, 1998년 3월 창간한 「새마을운동」신문에 이어 2022년 3월 새롭게 시작하는 격월간 종합교양문화잡지 <새벽종>으로 새마을정신과 시대정신을 이어갑니다.

Prologue

마을을 가꾸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잘 살기 운동'.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끈 새마을운동이
국경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모범적 사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머나먼 이국땅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흘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이뤄낸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성과를
지구촌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뜻 깊은 일.
반세기 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유산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21세기 세계인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제4호 09+10 2022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① 새마을리뷰

06

Focus

‘함께 잘 사는 지구촌’ 위해 한자리 모이다
- 주한 대사 초청 새마을운동 협력세미나

10

펼침

나에서 우리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14

어울림

세계로 확산되는 지역개발모델
- 지구촌새마을운동



18

누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제천을 걷다
- 제천 여행

22

울림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교훈과 과제

② 새마을리뷰



24

이슈 탐독

사라지는 평생직장

28

새마을 사람들 I

즐거움과 자부심으로
이끌어 가는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 대구 서구새마을회

32

새마을 사람들 II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공동체의 가치
- 전북 익산시새마을회

36

대학새마을동아리

청년과 함께 과거를 잇고
미래를 여는 새마을운동

38

지구촌새마을운동

억압과 아픔의 과거를 벗어던진 두 나라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발전에 나서다
- 도미니카공화국 · 캄보디아

40

친절한 건강 가이드

콜레스테롤 관리, 제대로 알고 하자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저탄소 음식 대체육의 시대



③ 새마을뉴스

46

중앙회 소식

48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2년 9월 8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염홍철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3~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함께 잘 사는 지구촌’ 위해 한자리 모이다

주한 대사 초청 새마을운동 협력세미나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동력이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심어준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와 오세아니아까지 10개국 42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1973년 외국인 대상 새마을교육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48개국 6만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또한 2016년 SGL(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를 결성하여 현재 46개국이 참여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마을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킨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새마을운동 협력 확대를 위한 뜻 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write / photo. 홍보실



주한 온두라스대사가 현지 새마을운동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주한 대사 초청 새마을운동 협력세미나'가 지난 7월 1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그랜드살롱)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중 14개국 주한대사, 10개국 외교관, 29개국 외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SGL 회원국 주한 대사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국가 간의 새마을운동 협력확대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축사, 주한 동티모르 대사 축사,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기조강연, 국내·국외새마을운동 사례발표, 지구촌새마을운동 발전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시작되어 도시, 직장, 학교로 확산돼 국가발전에 초

석을 마련했다"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지구촌 모든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최적의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에서 "UN과 OECD는 새마을운동을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148개국 6만여 명의 외국인이 새마을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오세아니아 등 10개국 42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마을정신을 공유한 46개국을 하나로 연결해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 SGL을 창립했다. 🔄

*SGL(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온두라스, 잠비아, 미얀마, 남아공, 케냐,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동티모르,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등

- 마을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킨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새마을운동 협력 확대를 위한 주한 대사 초청 새마을운동 협력세미나가 개최됐다.

1 주한 대사 초청 새마을운동 협력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듣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2 축사를 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3 주한 대사 초청 새마을운동 협력세미나 기념촬영

나에서 우리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새마을운동은 전쟁과 가난, 민주화와 산업화 등 영욕의 한국사와 그 궤를 같이해 온 대한민국의 국민운동이다.
 국가의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나에서 우리로, 마을에서 나라로, 나아가 세계로 나아가는 공동체운동이 필요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모습을 살펴본다.

write. 신지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4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새마을교육 내실화

- 사업기간** 2022.3~11(연중) **사업대상** 44개국 464명
- 사업내용** 이론교육, 사례공유 및 현장견학, 분임토의



새마을 시범사업국가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

- 사업기간** 2022.3~12(연중) **사업대상** 10개국 42개 마을
- 사업내용**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글로벌 위기극복 및 상생과 협력을 위한 새마을운동 워크숍, 신규·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현장지도점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사업국가 모니터링, 성과 평가, 새마을 협력관 관리·지원 및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회원국(46개국) 간 파트너십 강화

- 사업기간** 2022.3~12(연중) **사업대상** 46개국
- 사업내용** SGL회원국 내 중앙회 역할 확대 및 교류 강화, 시범사업국가 각료회의 및 개발협력 MOU 체결, 사례공유 세미나 및 네트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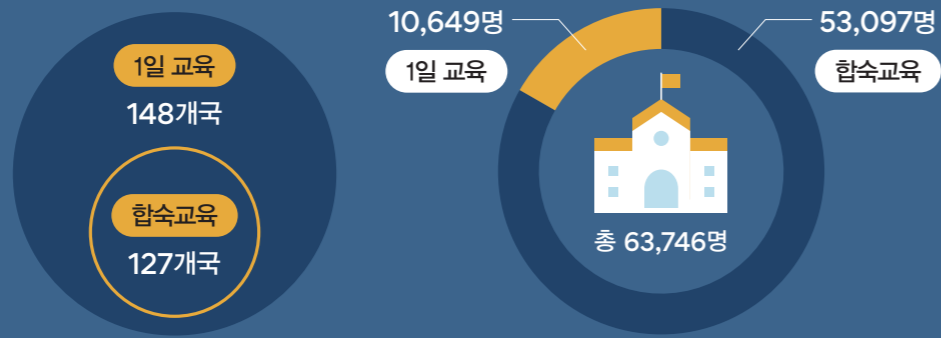
해외 새마을회 조직 육성 지원

- 사업기간** 2022.3~12(연중) **사업대상** 10개국(키르기스스탄 외 9개국은 NGO 등록)
- 사업내용** SGL회원국 새마을회 법인 설립, 새마을운동 실시기반 조성, 지역개발모델 정립, 국제협력강화



외국인 새마을교육 내실화

외국인 새마을교육 실적 [1973~현재]



새마을 시범사업국가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추진현황 [2009~2022년 합계]



SGL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 회원국(46개국) 간 파트너십 강화

SGL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조직구성

- 의장국가** 대한민국
- 부위원장** 우간다, DR콩고
- 사무국** 대한민국
- 아시아(16개국)**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요르단, 몽골
- 아프리카(16개국)**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DR콩고,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앙골라, 가나, 케냐,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
- 중아시아(2개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오세아니아(4개국)** 피지,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 중남미(8개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과나마, 파라과이, 페루

해외 새마을회 조직 육성 지원

국가별 새마을조직현황 [2022년 현재]

국가	새마을회	추진마을	회원
콩고민주공화국	DR콩고 새마을회	4	1,105명
몽골	몽골 새마을회	3	2,785명
네팔	네팔 새마을회	3	250명
우간다	우간다 새마을회	355	20,000명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새마을회	8	5,081명
필리핀	필리핀 새마을회	3	60명
부룬디	부룬디 새마을회	59	5,763명
탄자니아	탄자니아 새마을회	2	24명
파푸아뉴기니	이스턴하이랜드 새마을회	35	2,500명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새마을회	4	11,525명
미얀마	-	11	1,100명
동티모르	-	10	6,216명
피지	-	3	1,229명
온두라스	-	4	5,395명
라오스	-	12	12,833명
캄보디아	-	2	1,798명
마다가스카르	-	1	83명
세네갈	-	1	49명
스리랑카	-	2	269명
코트디부아르	-	2	56명

회원수: 3천 명 이상 국가: 8개국(우간다, 키르기스, 부룬디 등)

세계로 확산되는 지역개발모델 지구촌새마을운동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 물량 등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만으로는 장기적인 자립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형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지구촌이 직면한 빈곤문제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모델로서 성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운동 제창 52주년,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새마을운동을 살펴보자.

write. 김민영



지구촌에서 부는 뜨거운 새마을운동 바람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한 성과뿐 아니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원조를 지원하는 나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룬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협력대상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외국인 새마을교육과 해외 시범마을 조성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148개국 6만여 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별·사업연차별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지구촌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새마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45개국 850명(마을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거나 주민들의 교육수요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연수 등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등 마을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오세아니아 등

20개국 92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0개국 42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위기극복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각국의 다양한 활동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라오스,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아프리카는 부룬디, 우간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중남미에서는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진행)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마을 육성에 나서다

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 각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새마을 시범사업국가를 확대하면서 이들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범마을 사업 추진 현황파악과 개도국 현장지도점검 등 각 회원국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중 몇 가지 지구촌새마을운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티모르의 경우, 2016년 4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한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신규마을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 1
파푸아뉴기니 초청교육
(새마을역사관)
- 2
우간다 식수사업
(강구루미라 시범마을)
- 3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요르단 활동
- 4
키르기스스탄 탐가마을의
새마을지도자들



재실시해 2021년 4개의 새로운 시범마을(벨로이·비켈리·레퀴투라·셀로이 카라익)을 선정했다. 이후 마을지도자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해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과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마을마다 주민회관과 관광안내소 및 태풍 대피소 등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티모르 정부 역시 2021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한국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간다는 2009년 2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몇 차례 사업 종료 후 신규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7개 자생마을(칼라갈라, 강구루미라, 키우구, 카삼비아, 키왈라시, 시타, 수나)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민들의 위생향상과 식수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펌프를 설치하거나 목재활용 등을 위한 목목장을 운영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푸아뉴기니는 2017년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총 4개 마을을 선정(부쉬바타, 헤나가루, 카푸쿠, 카파나)하여 2018년부터 시범마을 사업 지원에 나섰다. 이후 마을회관 건립, 하수구 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개발수요가 큰 생활개선사업과 주민 다수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지속적인 공동체 개발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재원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두라스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새마을 시범사업국가로, 2018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4개 마을(엘 미스테리오, 쿠알리, 라 플로리다, 팔미찰 카르멘)을 선정하고, 2019년부터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설립, 식수 공급, 보건소 설치 등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며 생활개선에 나섰고, 특히 커피가공소 건립을 통해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여성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각 마을이 속한 지방정부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마을 사업에 지원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뜨겁다.

이처럼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며 인근 지역까지 전파,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다

올해 7월, 20여 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하는 '새마을운동 협력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새마을정신을 공유한 46개국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Saemaul Undong Global League) 회원국을 중심으로 서로의 성공경험을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는 새마을운동 추진 국가 간 네트워크 성격의 연합체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정부중심의 한계를 넘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구촌새마을운동의 현지화와 자생적 확산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모델을 정립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중앙회는 해마다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GSLF: Global Saemaul Leadership Forum)를 개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며 인근 지역까지 전파, 확산되고 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제천을 걷다

제천 여행

많은 사람들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하면 봉평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 제천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소설은 주인공 허 생원이 저와 같은 왼손잡이 동이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제천장으로 향하며 끝을 맺는다. 동이가 진정 허 생원의 아들이었을까 궁금증을 남기면서, 제천으로 향하는 길, 문득 이 소설이 떠올랐다. 달밤을 걷는 호젓함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던 장뿔뱅이 허 생원의 삶이 얼마나 애달프면서도 낭만적이었는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계절, 한낮의 여행일지라도 청명한 하늘이면 죽한 것처럼 제천 여행을 즐겨보기로 했다.

write. 김진희 photo. 김병구

브라운 카펫을 밟으며 초록 풍경을 보다

제천에 도착하니 제법 선선한 바람이 반겼다. 이 고장은 가을이 한 걸음 더 먼저 찾아오는 곳일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시절을 알고 물러나고 있는 것이 용하게 느껴졌다.

산뜻한 기분을 안고 향한 장소는 제천하면 떠오르는 명소 의림지다. 의림지로 가는 길목인 창전동 새터마을에 멈춰 섰다. 의림지로 이어지는 '삼한의 초록길'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제천시에서 기존의 농로를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친환경 관광길, 탄소 제로 관광지로 조성한 것이다. 막힘없이 뚫린 2km 남짓한 길 양옆에는 이름 모를 꽃과 풀들이 즐비했다. 수목류 55,000주 그루, 초화류 23만 송이 등 140여 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니,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산책로인 것 같았다. 느린 걸음으로 걷다 보니, 알게 모르게 긴장하며 살았던 마음이 차분히 내려놓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참 걷다 보니 길 끝에 있는 근사한 다리에 다다랐다. 2021년 7월에 완공된 '에코브릿지'는 감성 아경의 완결판이라고 불린다는데, 한 낮에 올라 팝아트로 꾸며 놓은 다리 위에서 너른 들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에코브릿지를 건너 드디어 의림지에 다다랐다. 의림지는 삼한 시대에 축조된 수리시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이다. 상당한 규모의 제방이라 그 크기만으로도 그 옛날 이 지역에 큰 권력자가 살았거나, 의림지 자체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음을 알려준다고 한다. 호수 반영마저 아름다운 의림지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고, 의림지 안의 명물 목조



다리를 건너 용추폭포로 향했다. 폭포 쪽에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있는 유리 전망대가 있었다. 발밑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찔한지, 어린아이가 된 듯 즐거워하며 한참을 전망대에서 시간을 보냈다. 용추폭포를 지나 흥류정에 오르면 호수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산수화 같은 풍경이 드러났다. 가만히 서서 자연이 그린 근사한 작품을 감상했다. 호수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난 뒤, 의림지역사박물관에 들렀다.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에서는 의림지 사계의 옛 모습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의림지의 형성 배경과 축조 방법, 전해지는 설화, 의림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을 엿볼 수 있다. 트릭아트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의림지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공간도 인상적이었다.

걸음걸음에 소원을 품고 골목을 걷다

의림지에서 나와 향한 곳은 교동민화마을이었다. 제천 시내권의 유일한 관광지인 교동민화마을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도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교동민화마을의 중심인 육거리에 서니 사방으로 나있는 골목길이 보였다. '학업성취길', '소망길', '장생길', '평생길', '장원급제길', '출세길' 등 골목마다 옛날 서민들이 민화에 담았던 소원을 표현한 이름이 붙어있었다.

남몰래 품은 소원 하나를 생각하며 교동민화마을 골목에 걸음을 내디뎠다. 전통 민화 풍의 그림부터 개성이 돋보이는 그림까지 정겹고 다채로운 벽화와 바닥화가 담벼락마다 길목마다 그려져 있어 지겨울 틈이 없었다.

30분 정도 마을 전체를 둘러보고 다시 육거리에 섰다. 이곳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과 책방도 모여 있다. 민화체험, 도자기 체험, 푸드 테라피, 놀이 상담, 리폼 공예체험, 벽화체험, 한방약초와 전통차 체험, 문형 맞춤 공예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동민화마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공방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인근에 예쁜 카페들도 있어 그중 한 곳에 들러 시원한 커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음 여행지로 향했다.

숨은 비경에서 여유를 즐기다

제천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는 맑은 물과 노송이 어우러진 계곡에 숨어있는 탁사정이었다. 탁사정은 굽이 흐르는 용암천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 원래는 옥호정(玉壺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자리였는데, 조선 선조 19년 제주 수사로 있던 임응룡이 고향에 돌아올 때 해송 여덟 그루를 가져와 심고 이곳을 팔송이라 칭했다고 한다. 이 일대의 지명이 팔송리인 것도 여기서 유래한다. 후에 임응룡의 아들 임희운이 팔송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또 후대에 허물어진 팔송정을 다시 세워 개항기 당시 의병으로 활동했던 원규상이 탁사정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기대감을 안고 탁사정 앞 용암천에 도착했다. 크고 작은 바위가 사방에 널려 있는 계곡과 소규모 폭포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고 있자니 어디선가 서늘한 골바람이 불어왔다. 왠지 조선시대 선비가 된 기분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이정표를 따라 탁사정에 올랐다. 생각보다 소박한 정자였지만, 주변은 그렇지 않았다. 병풍처럼 둘러싼 소나무들의 자태가 일품이요, 정자에서 내려다보이는 굽이 흐르는 계곡의 품세 또한 진경이었다. 탁사정에 앉아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을 소리로 피부로 느끼며 천천히 숨을 돌렸다.

어느덧 해가 누엿누엿 지기 시작했다. 아쉬움을 달래며 여행을 갈무리할 시간이었다. 걷는 일정이 많아 고단하기도 했지만,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풍요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사색할 수 있는 여행이었다. ☺

1, 2 정겹고 다채로운 벽화와 바닥화가 담벼락마다 길목마다 그려져 있는 교동민화마을

3 의림지로 이어지는 '삼한의 초록길'

4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중 하나인 의림지

5 충북 제천시새마을회장단 (뒷줄 왼쪽부터 박경배 직장·공장협의회장, 이용진 교통봉사대장, 앞줄 왼쪽부터 정도화 문고회장, 김진희 부녀회장, 이동연 제천시새마을회장, 신규상 협의회장)



제천시새마을회



☐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소개와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 제천시새마을회는 이동연 회장을 필두로 협의회, 부녀회, 직장·공장, 문고, 교통봉사대, 대학새마을동아리까지 총 6개의 단체와 전·현직남녀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은빛봉사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읍면동순회 탄소중립실천 교육, 새마을탄소공원 조성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밥상나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서문화 정착(독서문화정착)을 위한 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지킴이 활동 등 조직의 특성과 조직력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구촌새마을운동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 아동들을 위해 마을 놀이터, 학교를 새로 짓고, 책상 교복을 제공하는 등 학교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3년 동안 지원사업을 했던 라오스 폰해 초등학교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마을주민들의 눈물어린 환대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과 교실 벽 페인트 칠도 같이 하고 나무도 심으며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음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대가 변하면서 새마을운동도 그에 맞는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새마을회와 1만 2천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고유 정신을 살려 앞으로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이웃과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교훈과 과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수행하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고 농촌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지구촌공동체운동으로,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과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새마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구성하는 주요 사업이다. 현재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우간다, 온두라스, 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10개국에 42개의 새마을 시범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write. 이재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브라질학과 교수

●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개도국 농촌 마을이 사업대상이며, 새마을운동의 기본 가치인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의 함양을 바탕으로 정신계발, 마을환경개선, 소득증대와 같은 실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우리 새마을운동 핵심 기제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시범마을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마을당 연간 약 2만 불(US dollar) 정도이다. 한 국가에 통상 4개의 시범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니 국가 당 직접 지원 규모는 8만 불 정도로 추산되며, 시범마을이 조성된 곳이 10개국임을 고려하면 연간 직접 지원총액은 100만 불 남짓하다고 할 수 있다.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공여하는 다른 ODA 사업의 규모 및 일인당(一人當) 수혜액 등과 비교하여 보면 정말 적은 액수이지만 사업의 효과는 매우 크다. 시범마을 새마을회는 이 지원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마을주민이 모두 나서서 마을회관이나 보건소를 직접 짓기도 한다. 수원(水源)에서 식수관을 연결하여 집집이 편리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설치하기도 하며, 가축을 입식(入植)하여 기르기도 하고, 커피 볶는 기계를 장만하여 마을 고유의 상표를 고안하여 판매,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는 등 마을주민들이 바라던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나라마다, 마을마다 다르지만, 새마을운동의 도입 이후 시범마을의 가구당 실질소득은 사업 기간 중 13%~6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범마을의 변화 사례를 접하고 새마을운동의 공유를 요청하는 개도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범마을의 발전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따라 배우려는 마을이 곳곳에 생겨나는 등 시범마을의 효과가 확산하고 있다. 그 수가 압도적인 우간다(362개 마을)와 부룬디(54개 마을)를 포함하여 현재 5개국에 462개 정도의 '자생마을'이 생겨나고 있으나, 어떻게 이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의 원리를 식립(植立)하여 시범마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갈 것인가도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적절한 지도와 관리 없이는 자생적인 새마을운동의 착근(着根)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 ODA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 사업에 따르는 관리 활동이 새마을운동의 전파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 시범마을과 사업종료마을, 그리고 자생마을은 늘어 가는데 이를 관리할 인력과 예산 규모는 태부족이다. 이처럼 관리 활동에 대한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는, 성과 위주 평가에 따라 사업 후 관리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 ODA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물론 우리 ODA 전반에 걸친 인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사업 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거니와, 제한된 인력과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새마을 ODA의 성과를 지키는 데도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



New Paradigm of Work and Profession

사라지는 평생직장

여러분에게 직장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직장은 삶의 전부였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자신의 삶도 끝난 것처럼 여겼고 일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침이면 출근하듯 나와 산으로 공원으로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성이곤 했다. 직장이 직업이 되어 하루아침에 자신의 일상을 지배하던 존재가 손을 놓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는 직장고용 분위기를 싹 바꿔 놓았다. 대면으로 해결하던 업무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자 직장도 근로자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다. 초단타의 고용계약이 늘어나고 하나의 직장이 아닌 여러 개의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재난 상황에 불안함을 느낀 직장인들이 만일에 대비한 사이드잡을 가지게 되고 이것의 개수를 늘리고 있다. 마치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살아남듯 개인들도 위기상황에서 또 직업다변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write. 김용훈 시사평론가

긱워커(Gig Worker)

한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퇴임까지 일을 하는 것은 과거의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에게 이러한 개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MZ세대에게는 한곳에 매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직업 외에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하지도 않고 한 가지 일을 운명처럼 생각 하지도 않는다.

긱워커라는 말은 단기 계약을 맺어 일회성 일을 하는 초단기근로자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1920년대 미국의 재즈(Jazz) 공연장에서 연주자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계약을 맺어 공연했던 깃(Gig, 연주자)을 가져와 초단기 노동인력에 사용하고 있다. 정보 기술, 개발자 등의 비정규 근무자에 한정되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단기직업군의 확대로 단기계약근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규직보다 임시직을 고용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긱워커들도 늘어나고 있다. 긱워커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일을 만나는 것이 수월하다. 이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1 전대미문의 코로나19는 직장고용 분위기를 싹 바꿔 놓았다. 대면으로 해결하던 업무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자 직장도 근로자도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다.



N잡러(N-Jober)

과거에는 한 직장에 평생을 몸담아 일했지만 각워크 시대에는 'N잡러'라는 말이 생길만큼 한 가지 직업만 가지는 사람이 없다. N잡러는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의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 수(N)의 직업(Job)을 가진 사람(er)을 의미한다. 평생 한 직장에 목매지 않고 직장보다는 직업을 중시하며 다양한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러한 N잡러는 오직 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난에 휩쓸리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본업과 겸하면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다수의 수익 라인을 만들고 있다. 혹자는 N잡러를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정규직을 갖지 못하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이러한 이미지를 반전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가 대세가 되자 사람들은 본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안한 마음과 높아지는 물가로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일에 적극적이 된 것이다. 주52시간제가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배경이 되었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출퇴근이 아닌 필요시 출근하는 형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고용형태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필요한 인력의 단기 고용이 늘어나고 N잡러 열풍에 단타의 일을 원하는 구직자도 늘어나 하나의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갖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이다. N잡러의 존재는 바로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2

N잡러는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의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 수(N)의 직업(Job)을 가진 사람(er)을 의미한다.

3

100세 시대에는 전문직이나 기능직 상관없이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개척해야 한다.

회사에 무조건적인 희생과 복종으로 평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란 MZ세대인 20·30대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선호하며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향후 상당기간 우리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PC와 핸드폰에 익숙한 이들은 IT플랫폼에서 원하는 분야의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파이어족(FIRE)

파이어족은 30·40대 초반에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감행하는 사람들로, 파이어(FIRE)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벌어서 직장생활을 떠나겠다는 그들은 젊은 나이에 종자돈을 만들어 월급이 아닌 투자나 사업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직장에 묶이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100세까지 가능해야 한다. 파이어족 나이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데 요즘처럼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많은 그들은 무사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과거에는 직장에 입사하는 것은 정년까지 경제생활을 보장받는 일이었다. 기업이나 취업자는 서로 운명공동체처럼 하나로 뭉쳤다. 그러나 요즘의 취업은 취업일 뿐 기업이나 취업자 누구도 미래를 확정하지 못한다. 선망하던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다반사이다. 직무나 사내 분위기, 복지 등은 그 다음 순이다. 이는 기업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업무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가중되는 업무와 진행에서 밀려나기 마련이고 기업도 이들을 잡지 않는다.

작년 잡코리아 리서치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정년퇴직의 나이가 평균 51.7세였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년의 나이가 8년 빨랐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49.5세로 대답하여 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0세의 절반가량을 넘어선 나이에 퇴직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후 50여 년을 수입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다.

100세 시대의 직장관과 직업

100세 시대에는 전문직이나 기능직 상관없이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개척해야 한다. 경력이 실력이 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초단기 고용계약이 존재하고 다양한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직장인 아닌 직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직업은 직장을 포용한다.

직업은 자신의 전공분야가 되고 직장은 이러한 전공분야를 조합하는 다양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직업보다 직장을 중시해서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을 손꼽고 이곳에 들어가려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런데 막상 선망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기대치와 다른 직무, 팀 분위기 등에 실망하고 곧장 퇴사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일보다 기업의 이미지로 직장을 선택했

기 때문이다.

긴 시간 자신의 일을 즐기고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아하는 직업을 만나면 어떠한 직장이든 자신이 잘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직장이 아닌 다수의 직장을 나의 시간에 맞춰 조정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전공이나 적성을 무시하고 입사하면 직장생활이 신이날 수 없고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파이어족처럼 젊은 나이에 은퇴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가 막막하다. 한국의 2021년 연령대 별 경제활동참여율을 보면 65세 이상 36.3%로 65살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노인이 되도록 일을 하지만 빈곤율이 높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자 기초연금을 지속 인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작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83만6천 명이 취업했다. 그런데 공공형 일자리 비중이 70%가 넘는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용돈 수준의 월 27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지속성도 일의 보람도 찾기 어렵다. 장래인구 추계율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2030년 1,306만 명, 2040년에는 1,724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노후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이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세대에게 극단의 결과를 만나지 않도록 계도하여 미래를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가 노력을 해도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 결국 스스로 준비하는 직업으로 다양한 직장을 만나야 만족도가 높은 삶을 구가할 것이다. 🌟

● 긴 시간 자신의 일을 즐기고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즐거움과 자부심으로 이끌어 가는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대구 서구새마을회

2020년,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극도로 조심스러웠던 시국. 대구는 그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발생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곳에서 헌혈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접촉이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장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쳐 온 사람들. 그리고 그런 운동을 두 달에 한 번씩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어오는 사람들. 무엇이 그들을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간 대구 서구새마을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즐겁고 유쾌하고 넘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write. 신지선 photo. 김병구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유쾌한 새마을운동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기 마련이다. 대구 서구 새마을회 김동근 회장, 임상근 협의회장, 유순복 부녀회장, 김만호 직공장회장, 김성희 문고회장이 모여 앉은 곳에서 확실히 그들만의 유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시끌벅적,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 김동근 회장의 서구새마을회 소개를 먼저 들어 보았다.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라고 자부합니다. 회원 수도 많고, 활동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어요.” 더욱 구체적인 활동을 묻는 질문에 김동근 회장은 이렇게 답변을 잇는다.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간 헌혈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군부대나 학교, 단체 등의 헌혈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서구새마을회 사업으로 헌혈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코로나 위중증도 많고 거리

1
대구 서구새마을회장단
(왼쪽부터 김성희 문고회장, 유순복 부녀회장,
김동근 서구새마을회장, 임상근 협의회장,
김만호 직장·공장협의회장)





2

두기도 심해서 사람들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할 때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새마을운동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단 헌혈을 시작했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다 보니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혈이 새마을회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감과 동시에 좋은 취지에 동조하는 서구의 다른 단체들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덕분에 2020년 7월에는 3일 동안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서구체육회와 함께 릴레이 헌혈도 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그 행사는 1회성으로 끝났지만 이후에도 서구새마을회는 두 달에 한 번 헌혈차를 이용하여 30~40명 분의 혈액을 수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은 기념품도 나눠주며 헌혈 동참 캠페인을 펼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대구 서구새마을회의 사업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새마을운동

그뿐 아니다. 서구새마을회의 새마을운동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캄보디아에서 우물 파주기, 집 고쳐주기, 초등학교 학용품 기부하기 사업을 실시했으며 몽골에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기부도 했다. 특히 2017년 캄보디아 지구촌새마을운동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이주해온 지도자 2명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새마을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새마을 가족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팀을 꾸려 간달을 직접 방문했죠. 28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무더운 날씨에 차와 배를 갈아타며 3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기뻐했어요. 그분들도 어찌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지 정성스러운 음식도 대접해주시고 그 더운 날씨에도 질서 있게 학용품, 구급약품도 받아 가시더라고요. 먼 훗날 이 분들이 대한민국과 새마을운동을 좋은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상근 협의회장과 유순복 부녀회장의 설명이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간달과 깐뽕참을 찾아 초등학교에 학용품과 구급약품을 전달하고, 8가구 집 고쳐주기, 이미용 활동도 펼쳤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활동들이 대한민국과 새마을운동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3



4

2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3 캄보디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4 캄보디아 초등학교 학용품 기부

5 '줍깅'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 서구새마을회 회원들



5

이밖에도 서구새마을회가 내세우고 싶은 활동은 탄소중립을 위한 아이스팩 수거사업이다. 서구새마을회가 전국에서 발빠르게 시작한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현재까지도 월 2회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17개 동에서 집중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서구새마을회의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2021년 유순복 부녀회장이 대통령 표창과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좋은 일을 즐겁게 한 결과가 수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열심히 일할 동력이 되는 선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원동력은 자부심

대구 서구새마을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고 사업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문고 대구 서구지부는 동 단위까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직력의 힘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 새마을 문고 활동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김성희 문고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사업들을 풀어놓는다. 역사구러미 교실, 한자수업, 독서감상화대회,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독서캠페인, 알뜰도서관 교환전, 알뜰장터 등의 사업들이 수도 없이 불러 나온다. 김만호 직장·공장협의회장은 장학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직장·공장 회원단체들을 만나면 대부분 본인 사업 이야기를 하게 마련인데 서구새마을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여건 순수하게 새마을운동을 하는 단체죠.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20여 명 되는 회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장학사업 같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참여는 자연스럽게

회원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활동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 “즐겁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즐거워야 우리 회장님들도 즐겁고, 회장님들이 즐거워야 동회장님들이 즐겁고, 동회장님들이 즐거워야 회원들이 즐겁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즐거운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서구새마을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저희의 자부심으로 연결되죠. 조금 있다가 환경보호운동, '줍깅' 행사를 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들이 100% 참석할 겁니다. 이걸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김동근 회장의 깨알같은 자랑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구 서구새마을회 조직도가 크게 정리되어 붙어 있다. 그 안에 사진과 함께 많은 직책도 소상히 적혀 있다. 그 뿐인가? 이름표가 달린 초록색 조끼도 여기저기서 보인다.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맡고, 그 자리에 맞는 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거기에서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 회원들. 바로 이런 것들이 대구 서구새마을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인터뷰 내내 한 번 시작한 사업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난히 자주 들리던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그 해답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대구 서구새마을회 회원들을 보니 내내 가슴 뿌듯함이 느껴졌다. ☺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공동체의 가치

전북 익산시새마을회

시절이 변하여 혼밥, 혼술, 혼영이 대세가 된 시대다. 무엇이든 혼자하고 독립적인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함께 성장하는 뿌듯함과 기쁨을. 여름 햇살이 따갑던 어느 날, '함께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 전북 익산시새마을회 회장단을 만났다. 함께여서 힘이 나고 함께여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write. 신지선 photo. 이민희

공동체 안에서 이어가는 새마을정신

철 지난 철학이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정신 말이다. 과연 이 가치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사라져도 되는 것들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어쩌면 이 가치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즘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첫 만남에서부터 익산시새마을회 회장단은 대화 속에서, 활동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를 증명해보이고 있었다.

“익산은 특별한 곳이에요. 1읍 14면 14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죠. 익산시새마을회는 남성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협의회,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부녀회, 그리고 새마을 문고 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봉사는 해왔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활동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도 저희 익산시새마을회가 많이 알려지고 있답니다.”

1

전북 익산시새마을회장단
(왼쪽부터 이시형 협의회장,
장오준 익산시새마을회장, 강이순 부녀회장,
국영순 문고회장, 이청자 마동부녀회장)

장오준 회장은 익산시새마을회를 소개한 후 새마을정신에 대한 생각과 익산시새마을회의 활약상을 이렇게 덧붙였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정신이 뭐예요? 바로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런 정신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에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에는 혼밥, 혼술 같은 것이 유행하잖아요? 익산시새마을회는 사라져 가는 공동체정신을 잘 살려서 지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지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구체적인 활약상에 대해 묻자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 2050년 탄소중립국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이잖아요? 물론 너무나 거대한 담론이라 개개인이 하는 일이 미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안길 청소하기, 나무 심기, 꽃길 만들기 등등이죠. 제가 사는 금마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강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황각마을의 황각천을 살리면 만경강이 살고 이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 서해안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중성세제 사용을 줄이고 약초 비누와 약초 삼푸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금마저수지에는 숲 주머니를 만들어 넣어 물 살리기 운동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형 협의회장의 말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비누 만들기 활동이 바로 이곳 금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싶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니 익산 시새마을회 하동마을은 2019년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에너지 자립마을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다시 보니 회장단의 눈빛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느껴진다.

강이순 부녀회장에게 부녀회의 활동에 대해 묻자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가 나온다. “저희는 1천여 명 되는 회원들이 이웃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반찬 봉사를 하고 있고요. 더운 여름에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대접하고 겨울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은 인기가 많아요. 5,000포기 정도 담그는데도 부족하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는 방역활동에도 신경을 썼어요. 예전에는 부녀회원 연령층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잘 되는 느낌이랍니다.”

“저희는 탄소중립을 위해 마동부녀회와 함께 6세-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구사랑 포스터·표어’ 대회를 열고 있어요. 교육이 없는 사업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는 거죠. 문고 사업으로는 문학기행도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뜸해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대신 청소하기, 플라스틱 화분 만들기, 타일 벽화 붙이기 등

2,3 금마저수지와 황각천이 있는 금마면은 ‘물 살리기 운동’으로 수질 오염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비누 만들기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4 타일 벽화로 단장한 마을길

5 페페트병 화분을 만들어 마을길을 단장하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부녀회와 협의회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을 더불어 하고 있답니다.” 새마을문고의 국영순 문고회장의 설명이다.

내 일, 네 일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공동체정신이 사업 곳곳에서 지문처럼 느껴진다. 역시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명언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29개 읍면동의 아주 특별한 특색 사업

익산시새마을회는 ‘타일 벽화 붙이기’와 ‘비누 만들기’ 등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이다. 29개 읍면동이 지역 맞춤형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발굴해 사회적 자원을 확충하고 있다. 금마저수지와 황각천이 있는 금마면이 ‘물 살리기 운동’으로 수질 오염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비누 만들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 마을길 단장이 필요했던 마동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 운동을 하기 위해 ‘타일 벽화 붙이기’ 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이청자 마동부녀회장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동부녀회원들과 함께 무너진

화단에 블록을 쌓고 페인트칠을 했어요. 그곳에 타일 벽화를 만들어 붙이고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화분들로 마을길을 단장하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참여한 사람들은 본인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으니까 더 즐거워하고요, 그렇게 만들어가다 보니 그곳이 이제는 우리 동네 미술관이 되었답니다. 이외에도 마동에서는 도농 협력 사업으로 망성면과 협력관계를 맺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이야기가 나오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신기하게도 익산시새마을회는 1읍 14면 14동, 때문에 면과 동을 하나로 묶어 협력 사업을 하기가 좋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부터 시작한 1동 1면 운동은 앞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모든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고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 선한 영향력은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결국 돌아와 나를 살린다. 아무리 세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마을운동 현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무너진 화단에 블록을 쌓고 페인트칠을 했어요, 그곳에 타일 벽화를 만들어 붙이고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화분들로 마을길을 단장하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청년과 함께 과거를 잇고 미래를 여는 새마을운동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장 박준영 (영남대학교 4학년)
 대학새마을동아리 부회장 박혜경 (배재대학교 2학년)
 대학새마을동아리 부회장 임근호 (대동대학교 2학년)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의 대학새마을과정 교육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새마을운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공유하고 연대와 화합으로 새마을운동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 현장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임원진들을 만나보았다. 새마을운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 사람과의 대화를 옮겨본다.

write. 심혜경 photo. 김병규



Q.1 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준영 저는 전공이 새마을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발전의 전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문으로 배운 새마을운동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어서 새마을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혜경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던 저에게 김하윤 교수님께서 먼저 새마을동아리를 권해주셨고 이후에 새마을운동에 대해 궁금해졌으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Q.2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장단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 부담감도 들 것 같은데 어땠나요?

박준영 시작이다 보니 부담이 크지만, 주위 분들의 응원과 열심히 도와주는 동아리원들이 있어서 힘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앞으로의 자긍심은 제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사명감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근호 부담감보다는 감사함이 큼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함보다는 제가 무엇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새마을운동이 보다 젊어지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준영 우선 대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저력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이어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잘 활용하고, 청년홍보단(새럽)처럼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경 젊은 세대가 새마을운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캠페인을 통한 SNS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MZ세대이다 보니 SNS의 활용도를 높일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근호 소통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통의 기본은 존중입니다. 타인과 소통하려면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통창구를 구축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테지만 그 이후에는 세대 간의 이해가 저절로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4 다른 학생들에게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참여를 권한다면요?

박준영 참여를 권하기보다는 좋은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그랬듯, 학생들이 좋은 사례를 보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경 MZ세대들은 성공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펙이 외면의 포장에 불과하다면 스토리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5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의 계획 그리고 바람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박준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동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대학생들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동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백혜경 SNS활용을 통한 홍보와 소통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새마을동아리 회장님들과 새마을교육을 통해 더 자세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0년 뒤의 새마을운동은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근호 많은 도움을 주셨던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억압과 아픔의 과거를 벗어던진 두 나라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발전에 나서다

도미니카공화국 · 캄보디아



남미의 열정으로 한국을 따르다! 도미니카공화국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다가 1795년 프랑스에 이양된 후 프랑스령인 아이티에 수차례 점령당했던 도미니카공화국. 정의와 평화를 되살리려는 오랜 투쟁 끝에 1844년에 이르러 완전한 독립을 일군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식민지배와 독재정치라는 아픈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그렇기에 수탈과 탄압이라는 참혹한 과거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뤄 선진국이 된 한국은 도미니카공화국에게 있어서는 희망 그 자체이자 동경해 마지않는 국가 모델이다.

식민지배와 독재정치라는 아픈 역사를 품은 나라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30년 가까이 지속된 내전의 상처를 가진 나라 캄보디아. 이 두 나라에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자립의 길을 찾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 본다.

write. 조화숙

2019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평가에서 중남미 22개 국가 중 10위에 속했던 도미니카공화국. 북미, 유럽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2014년부터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는데, 이 도미니카공화국이 최근 국가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올리기 위한 모책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선택했다. 2022년~2026년도 새마을 사업국가로 선정된 도미니카공화국엔 현재 4개의 시범마을에서(아도 마요르, 사바나 라르가, 로스 까까오스, 사바나 물라/ 바니카) 활발하게 새마을운동이 진행 중이다. 바니카에선 식수 공급을 위한 댐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마을에서는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한 카카오, 커피, 아보카도 등의 묘목 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마다 문맹인 주민들이 있어 새마을협력관과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각 지방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보이며 도로 정비, 농지 확보를 위한 여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에 미래가 밝다.

농가 소득 증대, 경제 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택해 한국 경제 성장의 발자취를 쫓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남미에서 한국처럼 작지만 큰 나라, 고난을 극복하고 찬란하게 일어서 선진국이 되길 간절하게 꿈꾸는 이들을 응원한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으로 새 아침을 열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에 자리한 나라 캄보디아는 고대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나라다. 현재 캄보디아 지역을 통치했던 크메르 왕조가 번성하던 12세기경에 건설된 앙코르와트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규모나 건축 기술에서 세계적인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대 크메르 왕조가 얼마나 강대했었는지 유럽의 대도시인 런던과 파리에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데 반해, 크메르 왕조의 수도였던 앙코르통옌 100만 명이 거주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메트로폴리탄이었는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크메르 왕조는 한순간에 몰락해 잊혔다가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고 독립한 후에도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침략 당하며 공산주의에 찢기는 등 숱한 시련을 겪어 1953년부터 나라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바뀐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찾은 외세의 침략과 내전으로 황폐해진 캄보디아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한캄친선협회를 통해 일찍이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가장 낙후된 마을 2곳(소난차이, 캄퐁트날) 선정되어 마을 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건립, 새마을주택 건립, 농수로 조성, 우물 설치 등의 환경개선 사업과 가축은행, 공동농장, 법씨은행 등을 운영하는 소득증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워크숍, 영농 기술 교육으로 주민들의 성장과 의식 변화를 이끈 결과 연 1모작에서 2모작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업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주민소득이 연 650미불(09년)에서 1,500미불(13년)까지 증가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생산량과 소득이 늘자 주민들은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대물림 된 궁핍과 빈곤에 익숙해진 채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만든 새마을운동. 도로, 전기, 상수도, 의료, 학교 등 아무런 문화 혜택이 없었던 오지 지역에서 희망을 꽃피워 낸 새마을운동 덕분에 오늘도 캄보디아 시범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아침을 열고 있다. ☺



도미니카공화국의 카카오 묘목농장



캄보디아의 옥수수 시범농장





콜레스테롤 관리, 제대로 알고 하자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

콜레스테롤은 쉽게 말해 기름, 동물성 지방이다. 대개 콜레스테롤 하면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만 생각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고, 넘치는 것 또한 간에서 분해된다. 그 외에도 콩팥, 뇌 등 비롯해 각종 장기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 흔히 기름, 지방이라고 하면 일단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름이다. 우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장기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세포들이 활동하다 생기는 상처, 혈관에 생기는 상처를 복구시켜야 하는데 일종의 땀질 역할을 콜레스테롤이 한다.

또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생성의 주재료이다. 여성호르몬, 남성호르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모두 콜레스테롤을 기본 원료로 한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당연히 호르몬 합성이 안 된다. 콜레스테롤의

매년 9월 4일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지정한 '콜레스테롤의 날'이다. 이 시기를 날로 정한 이유는 추석이 겹치고 휴가가 길어져 건강의 적신호가 오기 쉽기 때문이다. 추석 시기에 유독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비만도 많아졌다. 이에 우리가 잘 몰랐던 콜레스테롤과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write.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서울대 의대 겸임교수

중요한 역할이 또 있다.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진 비타민 D 합성에도 관여를 한다.

많아서 생기는 게 문제

문제는 간에서 너무 많이 생긴 콜레스테롤이다. 쉽게 말해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많아지면 간이 혈관 밖으로 내뱉어버린다. 그렇게 분출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돌며 온갖 문제를 야기한다. 콜레스테롤도 종류가 있는데 밀도가 높은 고밀도(HDL) 콜레스테롤과 반대로 밀도가 낮은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있다. 흔히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지방을 청소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붙어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혈관강째로 부를 정도다. 하지만 둘 다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정상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안 좋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정상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200mg/dL 미만이며 200~239mg/dL은 경계 수준, 그리고 240mg/dL 이상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고 부른다. 평소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200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mg/dL 미만이면 정상, 130~159mg/dL이면 경계수준, 그리고 160mg/dL 이상이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mg/dL 이하로, 심장병환자는 70mg/dL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HDL 콜레스테롤이 40mg/dL 이하이면 문제가 된다. H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는 원인은 나쁜 식사습관, 운동부족, 비만, 흡연, 스트레스의 축적 등이다.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 쌓이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결국 뇌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와도 직결된다. 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대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경우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은 66% 증가, 경계성 수치에 있을 경우 52%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 콜레스테롤이 증가할까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제거 능력 자체가 안 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여성들의 갱년기 때도 마찬가지다. 갱년기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진다.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에 도움을 주는데 호르몬 분비량이 줄면서 여성들의 경우엔 폐경기를 기점으로 콜레스테롤 분비가 확 늘어난다.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식습관이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지만 식습관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한다. 흔히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새우와 달걀노른자를 떠오르는데, 사실 이들 음식은 식품 안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올리지는 않는다. 미국 보건부 산하 식사지침자문위원회(DGAC)는 달걀·새우처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는데, 2015년 12월, 44년 만에 이 경고 문구를 철회했다. 식품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밝혀지면서 바뀌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올릴까? 바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다. 포화지방이란 흔히 상온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기름인데 인체에 들어가도 잘 녹지 않는다. 흔히 삼겹살 굽고 나면 하얗게 굳는 것이 바로 포화지방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믹스커피'와 '아메리카노'이다. 우선 믹스 커피의 경우 프림이 주범인데 프림에 포화지방이 많다. 돼지 목살과 같은 수준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서너 잔씩 드시면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아메리카노의 경우는 커피콩 자체가 문제다. 커피콩 자체엔 식물성 지방인 카페스테롤이라는 지방 성분이 있는데 간으로 흡수되면서 콜레스테롤로 변한다. 따라서 믹스커피에서 설탕, 프림 빼고 마시거나, 블랙으로 나오는 일명 인스턴트커피는 괜찮다. 냉동 동결식 커피라고 해서 동결 과정에서 카페스테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 종이 필터 놓고 커피를 내리는 것도 카페스테롤이 걸러진다. 카페에서 기계식으로 내리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다.

또 식물성 지방인데도 포화지방량이 많은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코코넛 오일이다.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 함량은 100g당 84.9g. 전체 지방산 중 포화지방의 비율은 무려 91% 가까이 포화지방이 정말 높은 동물성 지방인 버터(포화지방 약 65%)보다 높다.

또 팜유도 몸에 해롭다. 팜유는 팜 나무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인데 코코넛 오일과 마찬가지로 역시 포화지방 비율이 높다. 그런데 팜유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시중에 파는 제품들에 주로 들어있다. 바삭바삭한 맛을 내거나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식품들이 라면, 과자, 빵, 쿠키 등이다. 생크림 케이크에도 팜유가 들어간다. 따라서 과자나 빵을 살 때 뒷면에 성분 표기에 팜유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과자, 빵에는 팜유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나쁜 기름, 트랜스지방도 높기 때문에 성분 표기를 잘 살펴보도록 한다.

● **적정 수준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도 중요하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생긴 비만과 과체중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위험요소다.**



체중조절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까?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허리둘레 8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므로 허리둘레가 이 수치를 넘기지 않도록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체질량지수를 25kg/m² 이하로 체중을 감량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도 중요하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생긴 비만과 과체중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위험요소다. 주식으로 잡곡, 통곡, 채소 등을 섭취하고 등 푸른 생선은 주 2~3회 정도 섭취한다.

금연과 절주도 실천한다. 하루 30ml 넘는 알코올 섭취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인다. 하루 30분, 주 4회 꾸준히 운동이 권장된다. 신체의 산소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유산소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 수치 정도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다양하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약은 스타틴과 피브레이트이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이고, 피브레이트는 지질대사 조절에 관여하여 중성지방을 낮추어 주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약물마다 주로 작용하는 특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또한 건강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콜레스테롤 줄이기 생활수칙 10계명

- 1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 2 포화지방과 지방 섭취량을 줄인다.
- 3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피한다.
- 4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한다.
- 5 짠 음식은 피한다.
- 6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운동을 한다.
- 7 커피, 담배를 제한하고 술을 삼간다.
- 8 스트레스를 피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 9 고지혈증일 경우 꾸준히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다.
- 10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찾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진찰받는다.

저탄소 음식 대체육의 시대

요즘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폭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육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거기에 맛과 식감, 영양 등 대체육의 질이 높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고기 마니아였던 사람들도 채식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체육 요리를 파는 음식점은 물론 밀키트와 편의점 간편식도 등장했다.

write. 성혜경



대체육이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체육 등장 초기에는 '콩고기' 또는 '인조고기'라 불렸는데 이는 콩을 주원료로 만든 단백질 식품, 인공적으로 제조한 식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실제 육류와 비슷한 맛과 식감을 갖추게 되면서 육류를 대체하는 단백질원이라는 의미로 '대체육'이라고 통용되고 있다. 대체육이라 하면 주로 콩이나 밀·보리·버섯·호박 등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해 만든 식물성 대체육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외에도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미역과 다시마 등을 이용한 해조류 단백질 식품, 메뚜기와 번데기 등에서 얻는 곤충 단백질 식품, 균류 단백질 식품 등을 포함한다.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21년 53억6400만 달러(약 6조 4705억 원)였고, 2023년에는 60억3600만 달러(약 7조2812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전체 육류시장의 60%이상을 대체육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에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른 '미닝아웃' 세대가 있다. '미닝아웃'은 '미닝(meaning·신념)'과 '커밍아웃(coming out·벽장 속에서 나오다)'이 결합된 신조어로,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신념과 취향 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젊은 층을 말한다. 이들 미닝아웃 세대에게 대체육은 건강, 환경오염 개선, 동물복지를 고려한 '착한 먹거리'로 인식돼 있다. 꼭 미닝아웃 세대가 아니더라도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전 세대로 확산되면서 대체육 소비층을 더욱 넓히고 있다.

물론 대체육의 질이 높아진 것도 대체육 소비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 초기의 대체육은 콩 단백질을 단순히 압착시켜 고기의 조직감을 냈다. 물론 고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후 버섯, 밀, 감자, 호박, 곤약, 해조류, 효모, 섬유소 등 식감을 살릴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성분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가공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단백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구조가 바뀌어 조직감이 달라진다. 식품업계에서는 최적의 조직감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의 온도와 압력을 연구해 점점 더 질 좋은 대체육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분자 단위로 진짜 고기의 구성을 분석해 원료 배합, 온도 설정 등을 조정한 레시피도 만들고 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식물성 패티를 넣은 버거 세 종류와 일반 햄버거 하나까지, 총 4개 버거를 두고 어떤 버거에 진짜 고기가 들어갔는지 맞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참가자 4명 전원이 식물성 대체육이 들어간 특정 버거를 진짜 고기가 들어간 버거로 지목했다. 진짜 고기와 구별이 힘들 정도로 대체육 제품의 질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대체육이 육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지방인 고단백질이면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대체육을 육류 대신 섭취해 건강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물성 대체육과 육류가 영양학적으로 호환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체육은 피토스테롤, 페놀처럼 소고기에는 없는 유익한 대사를물질 함유하고 있지만 아미노산, 아미노산 결합체인 디펩티드, 비타민, 페놀, 포화 및 불포화 지방산 등 몇 가지 대사를물질은 소고기에만, 또는 소고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다.

육류와 대체육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식품이냐는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부적합하며, 서로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기에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완벽한 식품은 '골고루 먹는 습관'밖에 없다. ⬇

① 중앙·시도부녀회장 워크숍 (5.9.~11.)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조승희)는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동안 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2022년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 및 시도부녀회장 간 정보교류와 화합으로 조직 발전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탐방을 통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자 실시됐다.

② 문고 중앙·시도임원 한마음 워크숍 (7.1.~2.)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박경수)는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동안 충남 보령 환상의 바다 리조트에서 '중앙·시도임원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독서생활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사례발표, 대화의 시간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③ 28개국 외국인 유학생 초청 새마을교육 (7.12.~15.)



중앙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앙회에서 '2022 외국인 유학생 초청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28개국 주한 외국인 유학생 5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의 경험 공유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개발모델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대사관 및 중앙회 간 네트워킹을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운동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④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7.14.)

중앙회가 지난 7월 14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개최된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조선일보 환경대상은 1993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조선일보사(사장 방상훈)가 공동으로 제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부문 사회공로상으로 개인·임권일(전남 화순 천태초 교사), 단체-경북 예천군청(군수 김학동), 기업-새마을운동중앙회를 선정해 환경부장관 상장과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했다. 중앙회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 자원재활용품 수집활동, 농촌폐기물 수집, 환경정화활동, 장바구니 사용하기 및 홍보활동, 새마을대청소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⑤ 전국협의회장단 워크숍 (7.21.~22.)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회장 김종복)는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 동안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중앙임원 및 시도·시군구협의회장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협의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 및 시도·시군구협의회장단 간 정보교류 및 화합으로 조직 발전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 탐방을 통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자 마련됐다.

⑦ 동티모르 초청연수 새마을교육 (8.16.~25.)



중앙회가 지난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동티모르 새마을 시범마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초청연수 새마을교육은 마을별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스스로의 사업 추진의지와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을 뒀다.

교육생들은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새마을지도자의 자세와 역할, 마을회칙 및 총회운영 등의 강의와 분임토의, 액션플랜 발표의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견학·한국영화 시청·민속촌·경복궁 나들이 등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⑥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워크숍 (8.17.)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워크숍이 지난 8월 17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리회원들의 멘토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마을운동 이해증진 및 새마을·대학교 간 공동사업 개발, 교육·학술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60여 명은 이날 국·내외 새마을운동 활동 사례와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 활동 소식을 듣고 향후 대학새마을동아리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새마을운동 후원회원 모집

- 대상** 새마을운동에 관심 있는 전직 지도자, 학계, 기업인
- 후원액** 후원회 활동 참가시 연 300,000원 이상
후원회 활동 미참가(금전후원) 연 100,000원
- 가입절차** 새마을운동후원회원 가입신청서 제출 및 후원금 납부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3-291528
예금주 새마을운동중앙회

※가입신청서는 주소지 시도새마을회 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획조정국(031-620-2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소식

서울

역대급 물 폭탄에 두 팔 걷어

서울시새마을회(회장 김일근)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곳곳에서 긴급 복구활동에 나섰다. 특히 지난 8월 10일 회원 250여 명은 동작 구 사당2동의 남성사계시장과 신대방1동의 침수 가옥에서 토사로 뒤덮인 물품을 닦아내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부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부산시새마을회(회장 제종모)는 지난 7월 23일 성지곡수원지 숲길에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응원을 위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세계박람회'를 주제로 한 오행시 짓기, 응원사진 촬영 등에 참여하며 엑스포 유치를 기원했다.



대구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8월 12일 달서구 용산네거리에서 '2022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회장단과 회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참석자 110여 명은 시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섰다.



인천

겉gol! 줍gol! 건강하go!

직장·공장인천시협의회(회장 김영곤)는 지난 7월 16일 중구 하나계 해수욕장에서 '환경사랑! 지구사랑 함께해요 줍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4km에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걷기를 통한 건강을 챙겼다. 김영곤 회장은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며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2050 탄소중립 실천! 나부터!

광주시새마을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7월 22일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회원들은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하기 등을 홍보하는 한편, PET병 라벨제거 가위를 배부하며 사용법을 설명했다. 정경주 회장은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일 때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

대전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워크숍 개최

대전시새마을회(회장 양용모)는 지난 7월 27일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대전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 함께 펼치는 대학새마을동아리의 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시와 구 회장단을 비롯해 관내 8개 대학교의 지도교수, 동아리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새마을지도자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지역의 문제해결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제6기 독서문화지도사 양성교육 수료

문고울산시지부(회장 김애지)는 지난 7월 27일 시회관에서 제6기 독서문화지도사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6월 29일부터 11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40명이 참여했으며 전래놀이지도사 1급 1명, 2급 22명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재능기부활동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사랑의 삼계탕 나눔

세종시협의회(회장 임한석)와 부녀회(회장 엄미숙)는 지난 7월 15일 시회관에 관내 어르신 8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삼계탕 나눔'을 실시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색소폰 연주, 초청가수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경기

2022 어울림 생활농촌 활동

직장·공장경기도협의회(회장 최연숙)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 어울림 생활농촌활동'을 진행했다. 경기지역 4개 새마을대학동아리 학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 백학면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간, 도시와 농촌 간의 소통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

자원순환, 시군 순회교육

강원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관내 18개 시군에서 '2022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별 3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강원도민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조성과 이를 위한 시군새마을(지)회의 활동 역량 강화,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특강과 자원순환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충북

장애인시설에서 따뜻한 나눔

직장·공장충청북도협의회(회장 정태우)는 지난 7월 12일 장애인복지시설 '참사랑의집'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협의회 회원 24명은 시설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세탁기와 쌀 등 200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정태우 회장은 "연탄과 쌀 나누기, 집 고쳐주기 등 앞으로도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환경교육 및 반려식물심기 체험

충청남도부녀회(회장 임순복)는 지난 8월 12일 도회관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교육 및 반려식물심기' 체험을 실시했다. 체험행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을 알아보고, 공기정화는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식물을 직접 화분에 심어 보며 소중히 가꾸는 방법 등을 배웠다.



전북

백일홍회, 명예이사장 취임

전라북도새마을백일홍회(회장 이해희)는 지난 7월 22일 목영숙 명예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도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목영숙 명예이사장은 "후원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일홍회는 1982년 전북 지도층 여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녀회후원회로 현재 3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남

새마을줌깅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고전라남도지부(회장 박영수)는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 송이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새마을줌깅 활동을 전개했다. 회원들은 문고조직 활성화를 모색하고 문화공동체운동을 통한 품격 높은 사회 만들기를 논의하는 한편, 바다쓰레기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섰다.



경북

필리핀에서 꽃피운 새마을운동

경상북도협의회(회장 조성현)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필리핀 아클란주를 방문해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에 힘썼다. 회원들은 플로렌시오 아클란주 주지사를 만나 지구촌 생명운동 일환으로 망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현장을 견학했다. 이와 함께 카사마재단에 사랑의 쌀 2,000kg을 전달하며 함께 잘사는 지구촌 만들기 조성에도 앞장섰다.

경남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가 주최하고 새마을교통봉사대 경상남도지대대장 이순희가 주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다. 관내 마을회관 18개소 6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서다·보다·걷다' 안전보험 3원칙을 비롯한 횡단보도 건너기 등을 직접 체험하며 보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새마을줌깅, 투명 페트병 모으기 전개

제주도새마을회(회장 이기창)와 제주대새마을동아리(회장 최필성)는 지난 7월 6일 이호해수욕장 일원에서 '산·바다 새마을줌깅데이'를 전개해 대학 봉사 문화를 선도하고, 20일에는 페트병 분리배출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투명 페트병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북5도

제1회 통일새마을운동 워크숍 개최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7월 9일 이북5도청 강당에서 '제1회 통일새마을운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통일 후 새마을운동을 통한 내 고향 재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 좌장을 맡은 이명우 평안남도지사는 도새마을회가 제안한 이북5도 위원회와의 공동추진 제안을 수용하고, 매년 마을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해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서울 · 인천 강원 · 제주 이북5도

생명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협의회(회장 김성구)와 부녀회(회장 백성자)는 지난 7월 20일 관내 백화점 인근과 상가 골목에서 새마을줍김데이를 실시해 쓰레기 0.5톤을 수거했다.



• 문교 서울 강북구 수유동분회(회장 김옥진)는 지난 8월 4일 주민센터에서 '여름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을 열고 관내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비누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황두문)와 부녀회(회장 이종선)는 지난 8월 8일 노원구민의원전당과 인근 대로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홍보물과 장바구니를 전달하며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 앞장섰다.

• 서울 양천구부녀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7월 18일 신정 3동 일원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모으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펼치고, 20일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인천 연수구부녀회(회장 탁경옥)는 지난 7월 14일, 21일, 28일에 새마을회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활용 의류 리폼교육 및 폐현수막 리사이클'사업을 펼쳐 재래시장과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할 장바구니와 의류 수거용 마대를 제작했다.



• 인천 남동구새마을회(회장 신대현)는 지난 7월 18일부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변기 수조 페트병 넣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이완성)와 부녀회(회장 원선자), 문교(회장 송순영)는 지난 8월 16일 횡성을 시장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협의회(회장 이기영)와 부녀회(회장 최철순)는 지난 7월 19일 송천강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강원 삼척시협의회(회장 정희대)는 지난 6월 28일 지회 사무실에서 자원재활용을 위해 투명페트병 비닐제거 및 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 강원 정선군 북평면부녀회(회장 유순옥)는 지난 8월 17일 남평리 일원에서 버려진 농약병, 페비닐 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부녀회(회장 강복덕)는 지난 7월 12일 관내 클린하우스를 순회하며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했다.

평화

• 서울 강북구새마을회(회장 차충제는)는 지난 8월 12일 미아삼거리역에서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등을 알리며 태극기 달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서울 도봉구지회(회장 황이선)는 지난 8월 11일 창동역 일원에서 광복절맞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 서울 마포구지회(회장 박정환)는 8월 12일 협의회(회장 김중덕)와 부녀회(회장 김설란), 직장·공장(회장 이순선), 문교(회장 전현경)와 함께 마포구청역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가정용 태극기 800기, 차량용 140기를 배포했다.



• 인천 남동구 만수2동협의회(회장 차종찬)는 지난 7월 16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만수시장에 태극기 50기를 게양했다.

공동체

• 서울 강서구협의회(회장 김상열)와 부녀회(회장 이양자)는 지난 8월 11일 수해를 입은 동작구 신대방동의 지하 주거세대를 찾아 물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피해복구에 힘썼다.



•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김재성)는 지난 7월 26일 '사랑의 효 삼계탕 나눔' 사업으로 회현경로당에서 관내 어르신 50분을 대접했고, 같은 날 부녀회(회장 김순자)도 관내 경로당 3개소에 수박 5통씩을 전달했다.

• 서울 강북구새마을회(회장 차충제는)는 지난 8월 10일 수해지역인 동작구 사당2동 찾아 복구를 위한 긴급활동을 전개했다.

• 서울 은평구 불광2동부녀회(회장 강애순)는 지난 7월 26일 중복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70가구에 능이삼계탕,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8월 11일에는 신사동부녀회(회장 고창덕)가 관내 저소득가정 어르신을 위한 갈비탕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문교 서교동분회(회장 어용란)는 지난 7월 29일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도서 나눔을 실시했다.

• 서울 양천구 신정4동부녀회(회장 염순옥)는 지난 7월 28일 중복을 앞두고 주민센터에서 삼계탕과 과일, 밀반찬 등을 준비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삼계탕 사업을 펼쳤다.

• 인천 연수구 연수2동부녀회(회장 한재분)와 옥련1동부녀회(회장 정정숙)는 각각 지난 7월 20일과 25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계탕을 준비해 관내 소외계층과 홀몸 어르신 100세대와 150세대에 전달했다.

• 인천 남동구부녀회(회장 황금덕)는 지난 8월 8일 새마을회관에서 계절김치를 담가 영양죽, 과일과 함께 관내 소외계층 600세대에 전달했다. 간석4동협의회(회장 전흥옥)는 8월 16일 폭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주택가를 찾

아 대형 폐기물 수거 활동을 펼쳤다.

• 인천 부평구 청천동부녀회(회장 박명자)는 지난 7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복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사업을 펼쳤다. 부평2동부녀회(회장 강만순)도 지난 7월 1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협의회(회장 추성일)와 부녀회(회장 이선민)는 지난 7월 18일 국기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을 위로하기 위해 자매결연 군부대인 제1수송교육연대와 진격대대를 찾아 각각 철옥수수 1400개와 400개씩 총 2,000개를 전달했다.

• 강원 횡성군 횡성읍부녀회(회장 함영숙)는 지난 7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계탕 250인분과 열무김치 250통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강원 평창군 평창읍부녀회(회장 원금숙)는 지난 7월 20일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왔다.

• 강원 정선군 여량면부녀회(회장 박금자)는 지난 7월 16일에 복지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50분을 모시고 삼계탕과 떡, 간식 등을 준비해 대접했다.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부녀회(회장 이영미)는 지난 7월 1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도시락 나눔 사업을 펼쳐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160세대에 도시락을 전달했다.



생명

- 부산 부산진구부녀회(회장 최정옥)는 지난 7월 15일 새마을회 알뜰매장에서 버려진 현수막을 활용해 앞치마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 농가에 전달하는 지역맞춤 탄소중립실천 사업을 추진했다.
- 부산 동래구새마을회(회장 노진규)는 지난 7월 25일 내성교차로와 동래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부산 북구새마을회(회장 문봉영)는 지난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양덕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천연 염색 손수건 만들기 및 나만의 반려식물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7월 19일에는 양덕초등학교(교장 이정규)와 탄소중립실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부산 강서구부녀회(회장 정경자)는 지난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구청 인근에서 에너지 절약 방법 및 필요성을 알리고자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 부산 기장군 기장읍협의회(회장 오영철)와 부녀회(회장 김해순)는 지난 8월 14일 관내 재래시장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새마을과 함께 줌깅 데이' 활동을 전개했다.
- 세종 전의면협의회(회장 김장수)와 부녀회(회장 김홍순)는 지난 7월 14일 도개비도로변 등 관내 3개 지역에서 제조작업을 실시하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경기 김포시새마을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7월 27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목적 비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군(EM) 활성액 및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150여 개를 만들었다.



- 경기 이천시지회(회장 김동승)는 지난 7월 6일 창전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나부터 실천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이종용)와 부녀회(회장 박순희)는 지난 8월 9일 청담천 일대에서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한 '환경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평화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박원재)는 지난 7월 19일 새마을회관 인근에서 화단정리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해 깨끗한 마을환경 가꾸기에 앞장섰다.
- 부산 해운대구새마을회(회장 홍철우)는 지난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관내 대천공원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는 '제77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 대구 남구새마을회(회장 이현숙)는 지난 7월 4일 봉덕시장 상가 화재 피해 지역 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해 약 20여 톤의 화재 잔해를 정리했다.



- 대구 북구새마을회(회장 정연식)는 지난 8월 12일 북구청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의 의미와 게양 방법 등이 담긴 리플릿과 차량용 태극기 300개를 배부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기 시흥시부녀회(회장 홍화자)는 지난 7월 29일 신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다문화가정 주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주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행복 밥상' 사업을 개최하고 직접 담근 오이김치 140통을 관내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 경기 광명시지회(회장 장용성)는 지난 7월 19일 가림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기 구리시부녀회(회장 김광순)는 지난 7월 5일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 사업을 개최하고 직접 담근 오이소박이 240통을 관내 다문화 및 탈북민 가정에 전달했다.

- 경기 광주시지회(회장 박광성)는 지난 8월 11일 산사대로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피해를 입은 남한산성면 검복리 이재민들과 복구 현장 작업자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공동체

- 부산 동래구부녀회(회장 배말자)는 지난 7월 19일 인락1동숲속도서관에서 관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온정 품은 사랑의 이부자리 세트' 사업을 전개했다.
- 부산 남구부녀회(회장 최영실)는 지난 7월 11일 남구청 1층 주차장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사업을 실시하고, 직접 끓인 삼계탕 400인분을 관내 홀몸 어르신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 부산 북구 만덕3동부녀회(회장 윤옥남)는 지난 7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사업을 전개해 어르신 100세대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화명3동부녀회(회장 유순옥)는 지난 7월 1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치와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 30세대에 나눔을 실천했다.
- 문고 부산 해운대구지부(회장 윤규정)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천공원 광장에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500여 권의 도서를 대여하고 마스크 스트랩 제작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 부산 사하구지회(회장 김승용)는 지난 8월 3일 '시원한 여름나기 수박나눔' 사업을 실시해 업공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소장 임선홍)로부터 기부받은 수박 700통을 관내 지역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 문고 부산 사상구지부(회장 임선희)는 지난 7월 19일 장미철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는 새마을 양심우산 사업으로 우산 40여 개를 학진초등학교와 동공초등학교에 각각 기증했다.
- 세종 전동면협의회(회장 강선영)는 지난 7월 3일 북부터 재배한 감자 250kg을 수확해 관내 경로당 25개소에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는 지난 8월 11일 침수피해를 입은 경로당 청소를 시작으로 토사가 유실된 썸지공원 정비, 침수 가정집 청소, 수해농가 돕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조상권)는 지난 8월 10일 새마을지도자, 관내 보건소 방역소독반 회원들과 함께 하천변·대형 정화조 등 19개 방역 취약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여름철 합동 방역을 실시했다.
- 경기 파주시부녀회(회장 김명자)는 지난 8월 9일 '우리 동네 행복 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만든 밑반찬을 탄현면 내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군포시 군포동부녀회(회장 황광희)는 지난 7월 6일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담근 약 400kg의 김치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 경기 오산시부녀회(회장 홍영숙)는 지난 7월 12일 새마을회관에서 '행복나눔 어르신 삼계탕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직접 끓인 삼계탕 300인분과 마늘장아찌 등 밑반찬을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 문고 경기 의왕시지부(회장 박찬분)는 지난 7월 15일 왕곡이팝아트홀 광장에서 집에서 읽지 않는 도서 2권을 신간 도서 1권으로 교환해 주는 '신·구 도서교환전'을 개최하고 500여 명의 시민에게 신간 도서 700여 권을 교환해 주었다.
- 경기 가평군 가평읍협의회(회장 조돈수)와 부녀회(회장 고광희)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싱크대·창호 등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생명

- 광주 서구 양3동부녀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7월 14일 관내 상가 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해 손바닥 정원을 가꾸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광주 북구 두암3동부녀회(회장 최순희)는 지난 8월 4일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마을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전북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원석)는 지난 7월 15일 한옥 마을 일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줍깅활동을 전개했다.
- 전북 군산시새마을회(회장 정수영)는 협의회(회장 김창호), 부녀회(회장 양금옥)와 함께 지난 7월 16일 5일장이 열리는 대야전통시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바구니 나눔 및 줍깅활동을 펼쳤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부녀회(회장 한정문)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내 소재 버스 정류장 45개소를 순차적으로 돌며 오물 제거, 쓰레기 수거, 유리창 닦기 등의 환경정비활동을 전개했다.
- 전북 부안군지회(회장 권명식)는 지난 7월 13일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협의회(회장 정순열), 부녀회(회장 임복순), 문고(회장 오순희) 등 13개 읍·면 새마을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폐농약병과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등을 수거하는 '고향사랑·농촌사랑, 농촌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 경남 의령군지회(회장 이동기)와 부녀회(회장 주현숙)는 각각 지난 7월 29일, 8월 9일 관내 전통시장, 은행, 복지센터를 돌며 친환경 예코백 나눔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함께해요! Green 의령!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경남 창원군 이방면협의회(회장 성병일)는 지난 7월 25일 관내 일원에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내고장 환경정비·풀베기 사업'을 실시했다.

평화

- 광주 서구 농성1동부녀회(회장 김재옥)는 지난 7월 16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관내 상가 및 주택가를 돌며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문고 전북 김제시지부(회장 최연학)는 지난 7월 8일 관내 터미널 사거리에서 '태극기 게양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 전남 고흥군새마을회(회장 목용상)는 지난 8월 11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관내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배부하며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는 '전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했다.



공동체

- 광주 남구 사직동협의회(회장 이수원)와 부녀회(회장 조정숙)는 지난 7월 26일, 27일, 29일 관내 초등학교 로터리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교통안전봉사를 실시했다.
- 전북 김제시 금산면부녀회(회장 이은금)는 지난 7월 25일 금산중학교를 방문해 저소득층 중학생 20명에게 체육복을 전달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전하기' 사업을 펼쳤다.
- 전북 완주군새마을회(회장 구생희)는 용진읍협의회(회장 황병용), 부녀회(회장 김정자)와 함께 지난 7월 28일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저소득가정 50세대에 생선세트를 전달했다. 생선세트는 전주시 인후3동협의회(회장 황승일)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인후3동협의회는 2020년부터 3년간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 전북 장수군지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7월 21일 협의회(회장 이상우) 및 부녀회(회장 이명순) 지도자들과 직접 담근 김치를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90세대에 전달하는 '엄마찬(饌)스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전북 부안군 행안면협의회(회장 박한철)와 부녀회(회장 강영재)는 지난 7월 11~12일 관내 마을회관에서 돼지감자 장아찌와 배추 물김치를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150여 세대에 전달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전남 여수시새마을회(회장 서근전)는 지난 6~7월 두 달간 관내 경로당 500여 개를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 맛을 위한 에어컨 필터 청소를 실시했다.



- 전남 나주시새마을회(회장 신성수)는 부녀회(회장 김순례) 회원들과 함께 지난 7월 15일 관내 시민회관 야외 주차장에서 직접 만든 삼계탕 300인분과 과일을 대접하며 여름철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복(福) 복(復) 한 가득 삼계탕 한 그릇 나눔' 사업을 개최했다.
- 전남 구례군 토지면부녀회(회장 강정자), 광의면부녀회(회장 김영희), 산동면부녀회(회장 박춘화), 문척면부녀회(회장 김금옥), 간전면부녀회(회장 이삼례)는 각각 지난 7월 4일, 7일, 8일, 12일, 19일 관내 파출소와 함께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안심이방범순찰대' 활동을 추진했다.
- 전남 고흥군 고흥읍부녀회(회장 이점남)는 지난 7월 9일 관내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홀몸 어르신 및 소외이웃 120명을 위한 식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전남 보성군새마을회(회장 임영서)는 보성군청과 함께 지난 7월 22일, 26일 각각 관내 무사마을과 대동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메이크업, 스냅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2년 농촌 재능나눔 한마당' 사업을 추진했다.
- 전남 화순군 백이면부녀회(회장 황수경)는 지난 7월 12일 관내 복지회관에서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과 배추김치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 96가구에 전달하는 이웃돌봄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일진)는 지난 8월 9일 관산읍 저곡마을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가구를 방문해 싱크대와 출입문, 장판, 도배교체, 전기설비 점검 등

- 의 '농촌집 고쳐주기' 활동을 추진했다.
- 전남 강진군새마을회(회장 박종재)는 협의회(회장 이용득)와 부녀회(회장 전봉덕) 남녀지도자들과 지난 7~8월 관내 치매 및 홀몸 어르신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와 집안정리, LED전등 교체, 저상계단 및 보행안전바 설치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 전남 해남군 송지면협의회(회장 박재수)와 부녀회(회장 정희정)는 지난 7월 14일 새마을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관내 무연고 묘지를 찾아 별초 작업을 실시한 후 대죽도 조개채취장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 문고 경남 거제시지부(회장 김황원)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내 자연휴양림에서 피서객들에게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서대출, 작은 음악회 관람, 체험활동 등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피서지문고를 운영했다.
- 경남 양산시 물금읍협의회(회장 신영식)와 부녀회(회장 공예련)는 지난 7월 16일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을 만들어 60세대에 전달했다.
- 경남 함안군부녀회(회장 박순연)는 지난 7월 25일 법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남지부 봉사대원들과 함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및 수지침 활동을 전개했다.



- 경남 고성군 화화면협의회(회장 송경래)와 부녀회(회장 윤정애)는 지난 7월 20일 관내 주거환경이 어려운 어르신 2가정을 방문해 집 내·외벽과 담장 등을 칠하는 도색 작업을 실시했다.
- 경남 합천군지회(회장 박진식)는 지난 7월 6일 관내 창마 마을에서 가이면협의회(회장 배영호)와 부녀회(회장 정미숙), 하늘벽화봉사단,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진입로부터 안길까지 약 100m 길이의 벽면을 꾸미는 '희망나눔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생명

- 울산 남구 수암동협의회(회장 백조흠)와 부녀회(회장 김정례), 문고(회장 황현숙)는 지난 8월 1일 관내 일원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새마을줍김데이' 사업을 전개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다.
- 울산 동구새마을회(회장 김국주)는 지난 7월 26일 대왕암공원에서 휴가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홍보부채 200개를 나눠주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 직장 · 공장 충북 제천시협의회(회장 박경배)는 지난 7월 27일 비행장 일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재활용 수집 및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충북 진천군새마을회(회장 남재호)는 지난 8월 12일 중앙상가에서 시민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며 여름철 지구 환경 살리기 '에너지 Lock, 지구 樂' 캠페인을 전개했다.
- 충남 보령시지회(회장 추동신)는 협의회(회장 백길호), 부녀회(회장 신명숙) 지도자들과 지난 7월 27일 성주산휴양림에서 피서철 맞이 환경정화활동으로 '새마을줍김데이' 사업을 실시했다.



- 충남 서산시부녀회(회장 강애화)는 지난 7월 29일 새마을회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줄이고 내 컵 사용하기' 홍보물을 관내 15개 읍면동에 배부했다.
- 충남 계룡시부녀회(회장 이정미)는 지난 7월 27일 지회물품창고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아이스팩 수거함에서 수거한 아이스팩 250여 개를 세척했다.
- 충남 금산군새마을회(회장 길근섭)는 지난 7월 5일 금산군종합운동장에서 '3R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농약병, 캔 등 약 32톤의 폐자원을 수거했다.
- 충남 부여군 외산면협의회(회장 김윤태)와 부녀회(회장 박순화)는 지난 8월 9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 경북 영양군새마을회(회장 김종택)는 지난 7월 8일 군민회관에서 자원 선순환 실천을 위해 아이스팩을 수

거 · 세척해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는 아이스팩 다시 쓰기 캠페인을 실천했다.



- 경북 상주시새마을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천둔치주차장 일원에서 '2022 생명운동 실천 고철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약 300톤의 고철을 수거했다.
- 경북 청송군새마을회(회장 권동준)는 지난 8월 8일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청송군문화예술회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새마을줍김데이' 사업을 실시했다.

평화

- 대전 동구 자양동부녀회(회장 빈인순)는 지난 8월 11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관내 주택가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나라사랑 태극기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대전 유성구새마을회(회장 차정운)는 지난 8월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SNS캠페인을 추진했다.
- 울산 중구부녀회(회장 김영조)는 지난 8월 11일 관내 경로식당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나눠주며 광복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직장 · 공장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정원영)는 지난 6월 18일 옥천향수공원에서 관내 다자녀가정 37가구를 선정해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액자를 전달했다.
- 충북 영동군새마을회(회장 김종욱)와 부녀회(회장 오영실)는 지난 8월 15일 관내 웨딩홀에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는 유공자 및 사회단체인을 대상으로 태극기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충북 괴산군새마을회(회장 우태근)는 지난 8월 12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통시장 일원에서 국기게양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관내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에 가

정용 국기함을 전달했다.



- 문고 경북 문경시지부(회장 인기연)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앞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0여 권의 도서를 대여해주는 독서생활화 운동 및 환경안내소를 운영했다.
- 문고 경북 의성군지부(회장 이형철)는 지난 8월 2일부터 7일까지 조문국박물관에서 피서지 문고 및 환경안내소를 운영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1,000여 권의 도서를 대여해 건전한 문화 정착과 독서 생활화에 앞장섰다.
- 문고 경북 영덕군지부(회장 김지숙)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장사해수욕장 피서지 문고에서 약 3천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어린이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문고 경북 청도군지부(회장 김태달)는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문담 하류보에서 피서지이동문고를 운영하는 동시에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줍김데이' 사업을 추진해 피서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체

- 대전 대덕구 회덕동협의회(회장 이순용)는 지난 7월 15일 신대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들의 이불을 세탁, 건조해드리는 이동 빨래방 사업을 전개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 대전 서구 도마동협의회(회장 이진기)와 부녀회(회장 이경원)는 지난 8월 3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대청소를 실시했다.
- 충북 청주시 용암2동협의회(회장 이효공)는 지난 8월 16일 해오름마을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 18세대에 선품기를 전달하는 행복 1%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최영근)와 부녀회(회장 최숙자)는 지난 8월 3일 충주시 25개 각 읍면동에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모은 새 수건 1,000여 장 중 200장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참소망의 집에 전달했다.

- 충북 증평군 증평읍협의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8월 8일 관내 소외된 이웃 가정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증평군에 기탁했다.
- 충북 음성군부녀회(회장 신혜숙)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양로원을 방문해 선품기, 양말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손 마사지와 인마를 해드렸다. 또한 삼계탕 100인분과 과일을 대접해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 충남 천안시부녀회(회장 이영숙)는 지난 7월 13일 관내 일원에서 삼계탕과 김치를 만들어 홀몸 어르신 240명과 복지사각지대 이웃 6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김치 40인분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 충남 공주시 중학동협의회(회장 정인목)와 부녀회(회장 한순섭)는 지난 8월 10일과 11일 수해 피해를 입은 이웃 가정을 방문해 물길 정비, 토사 제거, 외벽 보수작업 등 복구 활동을 펼쳤다.
- 충남 논산시부녀회(회장 최연희)는 지난 8월 11일 새마을회 별관에서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펼쳐 15개 읍면동 600여 명의 어르신 가구에 나눔을 실천했다.
- 충남 당진시 당진3동협의회(회장 이종민)와 부녀회(회장 권오철)는 지난 8월 11일 새마을회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 사업을 펼쳐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4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 울산 울주군지회(회장 송병열)와 범서읍협의회(회장 이재민)는 지난 8월 8일 군청 광장에서 관내 소외계층 이웃가정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 경북 경산시 중앙동부녀회(회장 백정숙)는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나눔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7+8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박미혜

대학새마을동아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새벽종을 통해 알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좋은 동아리가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의 새마을회원들 모두 힘내시고 더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실천합시다.

원성훈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 진학한 후 자연스럽게 대학새마을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대에 걸친 새마을활동으로 어머니와 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족을 이어주는 새마을운동, 감사합니다!

정훈

여름날 바다처럼 시원한 파란색 표지가 산뜻합니다. 새마을운동을 대표하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인 공동체 정신이 지면 곳곳에 묻어나 이번호가 더욱 좋게 느껴졌습니다.

소뭇영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새마을운동의 활동상을 새벽종을 통해 새마을 가족이 구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종 파이팅입니다!

유광열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만남, 메타버스에 대한 글을 잘 보았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홍보에도 메타버스가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창규

새마을문고 소식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나라의 공통점은 문자와 인쇄술이 발달한 나라, 즉 책을 많이 읽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나무라기에 앞서 책을 읽는 분위기 조성부터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세류1동 새마을문고의 사례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키워낸다는 부심

도시와 경계를
살린다는 부심

이 멋진 곳을
지켜간다는 부심

농부신 농부심

대한민국에
농부라는 자부심이 커지도록!

